

改新敎의 大邱 傳敎와 宣敎 事業

권영배(문학박사, 계성중학교 교사)

I. 序言

개신교(Protestant)의 한반도 상륙은 조선 봉건 사회가 해체의 길을 걷고 있을 때였고, 조선 민중이 봉건 권력의 질곡으로부터 탈출구를 찾고 있던 시기였다. 당시 일부 민중은 그리스도의 신봉이 자신들의 생존을 담보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생각에서 교회를 구원처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19세기 말 외세의 침략과 봉건 권력의 착취에 신음하던 민중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실로 구원의 손길이였다.

조선 정부가 개신교에 문호를 개방한 것은 1884년 6월경이었다. 이것은 맥클레이(R. S. Maclay) 목사 일행이金玉均·朴泳孝·俞吉濬 등 개화파 인사들의 도움으로 조선에서 기독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왕의 허가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후 공식적으로 입국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회 해외 선교부 파송으로 중국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의료 선교사 알렌(H. N. Allen)이었다. 그는 은둔의 나라 조선에 대한 선교적 관심을 가지면서,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에 자신의 宣敎地를 조선으로 옮겨 줄 것을 청원하여 허락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는 1884년 9월 14일 상하이를 출발하여 9월 22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1884년 9월 22일은 한국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온 날로 기록되고 있다. 알렌 이후 1885년 4월에는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언더우드(H. G. Underwood)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H. G. Appenzeller)가 입국하였고, 5월에는 감리교의 선교사 스크랜턴(W. B. Scranton)이 도착했다. 이들의 입국을 시작으로 각국의 선교사들은 개인적으로나 또는 그들이 속한 선교 단체의 파송으로 속속 들어왔다.

한국에 입국한 각국 선교 단체로는 미국 북장로교와 남장로교, 북감리교회와 남감리교, 캐나다 장로파, 호주 장로파, 그리고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성공회 등이 있었다. 그렇지만 외국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에는 언어의 장벽, 조선 정부의 비협조 등과 같은 많은 장애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선교사 네비어스(J. L. Nevius)는 선교 방법론으로 교육 및 의료 활동을 통한 선교 방법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한국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대구 지역의 개신교 전래와 정착 과정을 살펴보는 동시에 선교사들의 선교 사업이란 관점에서 초창기 대구지역의 신교육 사업과 현대식 의료 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II. 改新敎의 大邱 傳來와 定着

1. 개신교의 전래

구미 각국에서 파송된 여러 교단의 선교사들은 한국에서의 불필요한 대립이나 지나친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교부 간의 선교 지역의 조정이나 상호 협력이 절실했다. 1893년 1월에 열린 제1차 연합 선교단 회의에서 선교 지역에 관한 조정이 있었는데, 여기서 남장로교 선교부는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을, 북장로교 선교부는 평안도와 서울 및 경상도 북부 지역을 선교 지역으로 설정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호주 장로교와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가 공동으로 선교를 하였으나, 경상도 지역에서는 호주 장로교가 경상남도 지역을, 미국 북장로교가 경상북도 지역을 선교 지역으로 설정하는 데 합의하였다.

대구는 미국 북장로회의 선교 지역이었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베어드(W. M. Baird 裴緯良) 목사가 1893년 4월 22일 대구를 최초로 방문하였는데, 이날이 바로 대구에 개신교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처음 들어온 날이다. 베어드는 그의 부인과 함께 1891년 부산지역 책임자로 부산에 와서 활동하던 중, 1893년 4월 15일에서 5월 18일 사이 경상도 북부지역 순회 여행을 계획하였다. 그는 조랑말을 타고 전도사 서경조와 고용인 박재용이란 소년 및 마부 두 사람을 대동하고 4월 17일 부산을 출발하였다. 그는 삼랑진, 밀양, 청도, 가창을 경유, 4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 대구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3일 동안 대구 약령시를 돌면서, 전도를 위한 노력과 함께 대구가 선교지회(Mission Station)의 기지로서 적합한지의 여부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베어드는 그 타당성을 확인하고 대구의 선교지회를 위한 부지를 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가 대구를 선택한 이유는 아래와 같았다.

- ① 대구는 경상도 북부 지방의 중심지이다.
- ② 대구는 약 7만 5천으로 추산되는 도내 최고의 인구 밀집 지역이다.
- ③ 대구는 교통상으로 볼 때 어느 방향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부산에서 서울로 통하는 대로변에 있고, 낙동강을 통하여 부산과 연결된다.
- ④ 대구는 정치적으로 중요하다. 경상감영이 있고 대구 도호부의 소재지이다.

- ⑤ 대구는 상업적으로 중요하다. 도내와 다른 남부 지역 사람들도 많이 찾는 약령시가 열린다.
- ⑥ 대구는 외국인 부동산을 구입, 수리, 입주하는 경우도 관리들이 방해하지 않는다.

이처럼 당시 대구는 경상감영의 소재지로서나 인구로나 또는 정치·지리적으로나 경상도 내륙 지방의 중심지였다. 특히 대구 약령시는 유명하였다. 약령시는 남문안 객사 부근에서 열렸고, ‘약재는 대구 약령시를 거쳐 가야만 약효가 난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명성이 있었다. 따라서 개시 때에는 일반인은 물론 전국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므로 대구를 선교 기지로 택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결정이었다.

그 후 1895년 11월 베어드 목사는 미국 북장로회 해외 선교부에 대구 선교지회의 설치를 청원하여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남문안에 일정한 부지를 매입하여 대구 선교지회 기지로 삼고 자신이 거주할 집을 매입하여 수리한 다음 1896년 4월 아내 애니(A. L. Adams)와 아들 존(John)을 데리고 이주하였다. 파란 눈의 이방인이 나타나자 더러는 집 대문을 부수기도 하고, 마당의 물독을 뒤집기도 하고, 문구멍을 뚫고 방안을 들여다보기도 하는 등 괴이한 일들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대구는 미국 북장로회 해외 선교부의 선교 지역이었다. 그리하여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베어드 목사 일행이 1893년 4월 22일 대구를 최초로 방문하여 약령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을 순회 전도하였고, 이것이 대구에 개신교가 공식적으로 전래되게 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2 개신교의 정착

베어드가 북장로회 ‘대구 선교지회’ 책임자로 임명되어 대구의 선교 기반을 마련해 가던 중, 그해 1896년 12월 서울 지역 선교 본부 교육 담당 고문(Educational Adviser)으로 전출되었고, 그 업무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던 처남 아담스(J. E. Adams 安義窩) 목사에게 인계되었다. 아담스는 부산에서 1년 동안 한국어를 익힌 후 1897년 11월에 부인 벨리(N. Dick)와 통역 겸 조수 김재수를 데리고 대구에 부임하였다. 아담스 목사가 대구에 도착하여 처음 예배드린 날짜는 1897년 11월 1일이며, 처음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담스 목사 부부와 아들(Edward), 부산 선교지부 선교사(Miss Marie Chase), 김재수 조사 등 5명이었다.

대구 최초의 교회는 대구 선교기지 내의 ‘耶蘇教會堂’이었다. 야소교회당의 설립은 개신교의 대구 정착을 의미한다. 야소교회당은 아담스가 1897년 12월 25일 대구에 들어온 미국인 의료 선교사 존슨(W. O. Johnson 張仁車)을 맞이하면서 조직하였다. 교인은 아담스 선교사 부부, 존슨 선교사 부부, 김재수 조사, 학습 교인 서자명, 鄭完植 등 모두 7인이었다. 이렇게 출발한 ‘야소교회당’은 1900년 7월 정완식과 김덕경이 세례를 받은 후부터는 수십 명이 예배를 드렸으며, 해마다 교인이 증가하여 1907년에는 800여 명을 헤아렸다. ‘야소교회당’은 ‘남문안교회’ 등으로 불리다가 일제 강점기에는 ‘남성정교회’로 불리었고, 그 후 다시 ‘대구제일교회’로 개명되었다.

개신교의 전교가 이렇게 급속히 확산되자 선교사들은 조사(助事 Helper)들을 대동하고 경상북도 각지를 순회하면서 교회를 설립하였는데, 1907년경에 이미 그 수가 70여 개소에 달하였다. 개신교의 현지 선교에는 조사들과 권서(勸書 Colporteur)들의 활동이 컸다.

조사들은 선교 초기에 선교사를 수행하여 지방을 순회하면서 선교 활동과 교회 일을 도왔다. 당시 한국 교회는 정식으로 교역자를 배출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교회를 관리해야 할 교역자가 필요함에 따라 조사제도를 급조하였고, 조사 한 사람이 보통 몇 개의 인근 교회를 관리하고 있었다. 조사들과 함께 권서들의 활동도 컸다. 권서들은 한글로 번역된 성서와 전도 책자를 어깨에 짊어지거나 머리에 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나 성경을 펴놓고 복음을 전도하였다. 특히 여자 권서들은 안방의 부녀자들에게 접근하여 성경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였다.

조사와 권서는 역할이 중복되기도 하였으나 선교의 동지로서 활동하였다. 후일 대구 선교지회에 온 블레이크(H. E. Blair) 선교사도 처음에는 권서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대구·경북 지역에 복음이 신속하게 뿌리내리고 교세가 확장되는 데에는 민중과 친화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 조사와 권서들의 역할이 지대하였다.

III. 改新敎의 宣敎 事業

1. 近代 敎育의 실시

개신교의 전래와 정착은 신문화의 수용을 동반하였다. 초기 선교 사업은 선교 본부의 선교 방침에 따라 교회 설립과 함께 교육 활동과 의료 활동 등을 통해서 민중 속으로 침투해 들어갔다. 서울에서 이펜젤러가 한국 근대 교육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培材學堂'을 세워 신교육을 보급하기 시작한 것이나, 알렌이 '濟衆院'으로 서양 의술을 보급하기 시작했던 것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사업은 선교 사업의 재생산을 위한 안정적 기반의 확충이란 측면에서 매우 주요하였던 것 같다.

대구지역의 신교육은 1900년 11월 남문안교회 구내의 초가집에서 아담스가 남자부 '大南男子小學校'를 개교한 것이 효시를 이룬다. 그리고 같은 해 브루엔 선교사 부인(M. S. Bruen)은 같은 곳에서 여자부 '信明女子小學校'를 개교하였다. 이들 두 학교는 후일 '喜瑗學校'와 '順道學校'로 개명되었다가 다시 '喜道普通學校'로 통합되었다.

개신교가 추진한 소학교 중심의 신교육 사업은 곧이어 중학교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그것은 1906년 경, 대구를 포함한 도내 각 교회가 경영하는 소학교에서 졸업한 기독교 가정 자녀들의 상급 학교 진학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도내에 교회가 운영하는 약 50개의 소학교에 400여 명의 재학생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진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 선교지회와 부산 선교지회의 선교사들이 대구에서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우선 대구에 남자 중학교를 설립할 것을 결의하였고,

아담스가 그 업무를 위임받았다.

아담스는 1906년 1월 대구 선교지회에서 학생을 모집하였고, 그해 5월 1일부터 20여 명의 남학생으로 10주 단위의 예비 학교를 운영하다가, 10월 15일 4년제 과정의 '啓聖學校'를 개교하였다. 학생 수는 27명이었다. 즉 계성학교는 대구·영남지역 최초의 중등 학교였다. 남문안교회의 선교사 사택 기와 집 3동을 기숙사와 교사로 사용하였다. 계성학교 수칙은 학교장 재량으로 정해졌는데, 이에 따르면 학생들은 수업료를 내지 않는 대신 학교를 위해 노력 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여학교도 설립되었다. 1901년 대구선교지회의 놀스(S. Nourse) 선교사는 동산 선교부 구내에 있는 여성용 사랑(舍廊)에서 15세 미만의 소녀 14명을 모아 월요 오후반을 조직 운영하였다. 수업 내용은 바느질, 글 읽기, 글 쓰기였다. 이를 기반으로 1907년 10월 23일 브루언 선교사 부인이 '사랑'에서 '信明女學校'를 개교하였다.

신교육은 종래의 서당이나 향교의 유교 교육과는 달리 외국어를 비롯한 신지식 교육을 실시하였다. 1910년 2월 당시 경상북도 내 신교육 기관 중 종교 학교가 74개교에 이르렀고, 그 중에서 장로교계 학교가 64개교나 되었다. 이처럼 개신교는 교회 설립과 교육 사업을 통해서 구체적인 선교 사업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었다.

이밖에 개신교는 계몽 운동 등 민족운동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개신교가 전래되던 시기는 한국 사회가 근대 사회로 이행되던 시기였던 만큼 아직도 각 분야에 봉건적 요소가 잔존해 있었다. 즉, 반상의 구별이 엄격하였을 뿐 아니라 남녀의 차별도 매우 심하였다. 양반가 규수라면 학교에 가는 것조차도 자연스럽지 못하였다. 초기 교회에는 남녀의 지리 사이에 장막을 치거나 성전을 아예 'ㄱ'자로 지어 서로가 바라 볼 수 없도록 하였다. 교회는 이런 구습들을 꾸준히 개선하면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반상의 차별 철폐 등에 크게 노력하였다.

또한 개신교는 금주·금연 운동을 일으켜 다수의 사람들에게 更生의 길을 걷게 하였을 뿐 아니라, 관혼상제를 포함한 가정의례를 간소화하고蓄妾과 같은 양반 사회의 폐습을 교정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풍속 교정과 관련된 경우를 보면, 이혼, 축첩, 음주, 금전 사취, 악습 등의 구습을 교정하지 않음으로서 責罰, 권고, 학습 취소, 학습 보류 등으로 그 책임을 물었던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이처럼 개신교가 교인들의 풍기를 엄정히 함으로써 성서에 대한 절대적 신앙과 세속과 종교를 분리시키는 복음주의와 경건주의에 중점을 두었다. 이것은 결국 개신교가 한국 사회의 봉건성을 일소하는 것으로 귀결되어 갔던 것이다.

2 現代 醫術의 보급

1) 열악한 의료 환경

1897년 미국 북장로회 해외 선교부에서 대구 선교기지(Taegu Station)에 선교사를 파견할 무렵 대구

인구는 약 6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적 의술이나 의료 기관은 전무하였다. 1890년대까지도 한국인은 90% 이상이 절대적 빈곤층이었다. 이들은 피가 순환한다는 사실조차도 몰랐고, 정맥과 동맥의 차이는 신경이 있고 없는 정도로 알았으며, 시체를 해부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질병을 일으키는 악귀가 사람을 병들게 하므로 귀신을 무서워하였고, 중국에서 들어온 귀신이 몸속에 들어와 천 연두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였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천연두를 겪고 나서 살아남을 때까지 이름도 짓지 않았다.

질병 치료 방법 또한 극히 제한적이었다. 열병 환자에게 흔히 말린 뚜꺼비나 뱀을 달여 먹였고, 몸이 허약한 경우에는 호랑이 치아를 갈아 만든 가루약을 특효약으로 먹었다. 골수염이 흔했으며, 궤양 환자나 백내장 환자도 빈번하였다. 가장 일반적인 질환은 만성적이 위장병이었다. 이것은 밥을 너무 많이 먹거나 밥을 덜 익혀 먹는 탓에 생겨나는 질환이었다. 나병환자 및 폐와 간의 종양도 빈번했다. 출산도 정상적으로 분만하는 경우를 볼 수가 없었다. 산후에 자궁이 탈출된 부인은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 자궁에 질산을 바르거나 뜨거운 인두나 기왓장으로 지지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감기에 걸렸을 때도 드롭스처럼 아편을 먹곤 하였다.

지금의 한의사인 의원의 유일한 의료 도구는 8인치 길이의 예리한 뜨개바늘과 같은 침이었다. 이 침을 몸의 이픈 부위에 찔렀다. 소독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계속 사용한 결과 많은 또 다른 환자들을 유발시켰다. 의원은 이픔과 질병을 일으키는 악령을 내쫓기 위해 계속 침을 놓았다.

대구라는 도시의 환경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민가가 밀집한 도심의 경우 악취가 심하게 풍겼고, 밤이면 개짖는 소리, 빨래 방망이 소리, 무당 굿하는 소리 등으로 소음이 대단하였다. 또 아침저녁 각 가정의 굴뚝에서 내뿜는 연기는 사람을 숨 막히게 하였다. 저녁때 산 위에서 시가지를 내려다보면 성문 꼭대기를 빼 놓고는 온 도시가 연기의 장막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이와 같은 절대적 빈곤과 무지, 의료 시설의 전무, 미신에 대한 맹신, 비위생적 환경 등이 당시 의료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대구 지역 의료 환경의 현주소였다. 비록 잘못 이해된 부분도 없지 않았겠으나 이는 비교적 정확한 진단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의료 선교사의 활동

한국에 서양 의사로서 처음 입국한 사람은 1884년 9월 의료 선교사 알렌(H. N. Allen)이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서울에 한국 최초의 현대식 병원 '濟衆院'을 열어 의료 활동을 개시하였다. 서양 의사로서 대구에 처음 온 사람은 베어드 목사 일행이 1894년 4월 경상북도 지방을 순회할 때 함께 대구를 순회한 의료 선교사 얼빈(Irvin)이었다. 그러나 대구에서의 그의 행적은 분명하지 않다.

대구 지역에 현대 의술을 보급한 최초의 의료 선교사는 존슨(W. O. Johnson 張仁車)이었다. 그는 라파셋 대학을 졸업하고 1895년 6월 펜실베이니아 의과대학에서 의사 훈련을 받았으며, 뉴욕 부르크클린의 킹스 카운티 병원(King's County Hospital)에서 인턴 수련을 받았다. 그는 1899년 대구 선교지회 안에

있는 초가집에서 대기실, 진찰실, 수술실 등을 갖추고 '濟樂院'이란 의료원을 개설하였다.

제중원의 진료소 구조는 큰방(30×12피트)과 작은 진찰실(9×15피트)과 창고로 구분되어 있었다. 큰방은 다시 밝은 약제실과 어두운 수술실로 구성되었다. 철사줄로 울타리를 쳐 놓은 이 건물과 별도로 15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대기실이 있었다. 철사줄로 울타리를 쳐 놓고 빗장 달린 대문을 세운 것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존슨이 치료 활동을 개시하기 전에는 '美國藥房'이란 간판을 달고 의약품만 팔았으나 진료소의 모든 준비가 완료되고 치료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제중원'이란 간판을 달았다. 이 제중원은 1903년 현재의 동산동으로 이전하여 '동산병원'이 되었고, 1905년에 종합 병원으로 발전하여 지역 주민의 사랑을 받았다.

존슨의 의료 활동 역시 전교 사업의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한 예화를 보자.

“나이는 65세, 백내장으로 두 눈이 완전히 먼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하였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하고 의료 선교사가 물었다. ‘아니오, 그렇지만 내 눈을 고쳐주지만 하면 나는 물론 믿을 것이고, 나를 간호하러 오는 이들도 믿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병문안 온 출가한 딸도 ‘우리 어머니의 눈만 고쳐 주신다면 저도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어느 날 아침 예배 시간에 백내장 수술을 받은 이 할머니는 부축해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예배실로 걸어 들어왔다. 예배가 끝난 후 그녀는 ‘하나님이 내 눈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했고, 퇴원하기 전 그녀의 아들인 18살 된 서삭불이도 ‘저도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녀의 시집간 딸은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기로 결심은 했지만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못하는 것은 남편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일화는 의료 선교사 존슨의 성공적인 의료 활동으로 환자 일가족이 크리스찬으로 입교하게 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의료 선교사들의 의료 활동은 복음을 급속도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전파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제중원에서는 일반 환자 뿐 아니라 산모와 아기의 생명도 많이 구하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존슨은 지난 주 그의 부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의 첫 번째 제왕절개 수술을 했다. 이 수술의 성공으로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구했다. 이 외과 수술법은 존슨의 명성을 더욱 높였다.’ 라고 하였다.

나환자 치료 사업도 시작되었다. 경상도 지방에는 나환자가 많았는데, 1908년부터 제중원에 나환자가 찾아 들었다. 이 당시 대부분의 나환자들은 매독에 감염되어 있었다. 존슨은 이들의 매독부터 치료해 주었다. 따라서 제중원에서는 나병환자도 치료한다는 소문으로 많은 환자들이 끊임없이 찾아 왔다. 1909년 어느 날 존슨은 병원 근처에 초가집 한 채를 마련하고, 10명의 나환자를 수용하여 간호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요양원 성격의 나환자 사업의 시작이었다.

그 후 존슨은 건강상 이유로 경영직에서 물러나고, 후임으로 1911년 시카고 내외과의과대학(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출신인 미국 연합장로회 선교부 선교사 플레처(A. G. Fletcher)가 병원장에 취임하여 경영직을 승계하였다.

이와 같이 대구 지역 초기 의료 사업은 대구·경북지역에 서양 의술을 도입함으로써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 활동은 개신교 선교에 장애가 되는 한국인의 편견과 오해를 반감시킴으로써 그 후 여러 선교사업 활동을 용이하게 하여 개신교 복음화의 기반을 이루었던 것이다.

IV. 結言

개신교 전교를 목적으로 대구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회 해외 선교부 베어드(W. M Baird) 목사였다. 그가 대구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은 1893년 4월 22일이었다. 이날은 대구에 개신교가 공식적으로 처음 들어온 역사적인 날이다. 그 후 베어드와 아담스(J. E Adams)의 노력으로 대구 선교 기지(Taegu Station)가 마련되면서 대구에 개신교가 정착되는 계기를 이루었다.

1896년 12월 베어드 목사가 서울로 옮겨 가고, 그의 후임으로 아담스 목사가 부임해 왔다. 그는 1897년 12월 의료 선교사 존슨 가족을 맞이하면서 대구 최초의 교회당인 '야소교회당'을 조직하고 전교 사업을 본격화 하였다. 그 후 야소교회당은 남성정교회로 바뀌면서 교세가 더욱 확산되어 갔고, 그 결과 여러 교회로 분립되어 나갔다. 범어교회(1912.3), 신정교회(1912.5), 효목교회(1912.10), 남산교회(1915.7) 등이 그러하였다.

교회 설립은 경북 도내 선산, 군위, 김천, 칠곡, 고령, 영일, 경주, 청송, 의성 등 각지로 확산되어 갔다. 1907년경에 이미 그 수가 70여 개소에 달하였다. 개신교의 현지 선교와 교회 설립에는 선교사들의 활동을 돕는 조서(Helper)들과 권서(Colporteur)들의 활동이 컸다.

개신교는 종교 사업 이외에도 교육 활동과 의료 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대구 지역의 신교육은 1900년 아담스와 브루언 부인(M. S. Bruen)이 설립한 '대남남자소학교'와 '신명여자소학교'를 개교한 것이 효시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러한 소학교 중심의 교육 사업은 중학교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아담스는 1906년 10월 15일 영남지역 최초의 중등학교인 '계성학교'를 개교하였다. 또 브루언은 1907년 10월 23일 '신명여자학교'를 세웠다. 이후 대구 지역에서도 신교육을 통한 근대 교육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갔다.

한편 대구 지역 현대적 의료 활동은 1897년 12월 의료 선교사 존슨(W. O. Johnson)이 대구에 들어오면서부터였다. 즉 존슨이 대구 지역에 현대 의술을 보급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는 1899년 대구 선교지회 안에 '濟衆院'이란 의료원을 개설하고, 현대식 의료 활동을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이 제중원이 오늘날 대구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동산의료원'이 되었다.

이처럼 대구 지역에서도 개신교는 신지식의 보급을 통한 근대 교육 활동과 서양 의술을 통한 현대적 의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전교를 극대화시킴과 동시에, 지역 사회를 근대 사회로 이행시키는 추진체가 되었다. 그러나 대구의 이러한 사업은 서울이나 평양 등에 비해서는 낙후되

어 있었다. 서울의 세브란스 의과대학과 연희전문학교 및 평양의 숭실대학이 선교 초기에 이미 설립되었던 데 비해 대구에는 1953년에서야 겨우 계명대학이 설립되었던 것 등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참고문헌>

- Richard H. Baird, Willim M. Baird of Korea, USA. 1968.
- 김원모 완역, 『알렌의 일기』, 단국대학교출판부, 1991.
- 기창덕, 『한국 근대의학교육사』, 서울아카데미, 1995.
- 권성수, 『교회성장이야기』, 기독교신문사, 1997.
- 이광린, 『한국의 근대화와 기독교』, 숭전대학교, 1983.
- 이만열, 『한국기독교 수용사 연구』, 두레시대, 1998.
- 전재규 편집, 『동산의료원 100년』,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1999.
- 권영배, 「서양문물을 전파한 개신교」 (조선사연구회 편 『조선시대 대구의 모습』, 2002)
- 권영배, 「현대의학의 개척자들」 (조선사연구회 편 『조선시대 대구사람들의 삶』, 2002)
- 이덕주, 『한국 교회 처음이야기』, 홍성사, 2006.
- 대구광역시, 『대구시사』(제1권), 대구시사편찬위원회, 1995.
- 대구제일교회, 『대구제일교회백십년사』, 110주년편찬위원회, 2004.
- 대구칠곡교회, 『대구칠곡교회 100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칠곡교회, 2006.
- 학교법인계성학원 『계성백년사』, 계성100년사편찬위원회, 2006.